

01 한국 건축의 사대주의와 국수주의 현상

Phenomena of Korean architecture, 'flunkeyism' and 'nationalism'

글. 홍성용 Hong, Sungyong | 본지 편집국장·건축사NCS LAB·서울시 공공건축가

한국 건축의 국수주의와 사대주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실제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확하게 누군가가 주도하는 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건축철학

다만, 누구하나 국수주의자로 건축을 주장하거나 사대주의자로 건축을 주장한 적이 없다.

국수주의와 사대주의가 무엇인가?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의 첫 단계다. 사대주의(事大主義; 영어: flunkeyism)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주의를 말한다. 사대주의는 20세기 초반에 국수주의자들이 크고 강한 국가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당시의 지배층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위키피디아> 재미 있는 것이 국수주의자들이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수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타민족·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역사적인 실례로 일본의 메이지[明治] 이후의 국수보존사상(國粹保存思想),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을 들 수 있다.<두산백과>

두 가지 모두 비교해보면 상대적이다. 흑과 백처럼 상대가 있어야 강조되는 생각인 점이다. 그리고 문제는 둘 다 극단적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조금 희석하면 긍정적 단어가 된다. 사대주의를 부드럽게 다듬으면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의 장점을 본받자”라는 것이고 국수주의를 희석하면 “스스로의 장점에 자부심을 갖자”가 된다.

즉, 전통건축의 맥이 끊어지고 현대 건축으로 급격하게 진입한 한국 건축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함유한 채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현재에 이른다.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고 만들어낸 사상적 성과나 정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식민시대는 조선인은 건축의 정점인 설계를 차지할 수 없었다. 건축 설계는 자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낮은 대신에 머리에 해당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에서 조선인에게 설계의 지위를 줄 수 없었다. 일본 식민시대에 조선인이 건축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드물었다. 손에 헤아릴 정도의 숫자로 판검사나 변호사 숫자보다 더 적었다. 해방이후 산업의 속도는 건축설계의 철학적 성장을 기다리지 못했고, 기능적 요건이라도 공급되기 원했다. 이는 성찰과 깊이를 담아내는 속성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스스로의 건축 철학을 만들지 못한 채 경제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종속적 상황이 되어 버렸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후 나타난 사회 현상에 건축도 매일반이어서 새로운 강대국이면서 동경의 대상인 서구 문화는 빈곤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대중적으로 맹목적인 추종분위기를 만들었다. 극단적인 자학적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의 건축과 공예 등 전통적 산물이 부정적 대상이 되었다. 이 근저에는 식민주의 시대 일본에 의한 '열등교육'이 한몫했다. 서구 닳기의 끝판왕은 신을 신고 실내에 들어와 생활하는 주택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관습과 문화는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택은 확장되지 못하고 바로 사라져갔다.

1960년대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절대적 정치권력에 의해서 나타난 국수주의적 경향이다. 실제 대중적 인식은 서구에 대한 동경이었지만, 정치권력이 후원하고 지지한 것은 '한국적'이라는 테마였다. 많은 국가 건축은 전통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 결과는 콘크리트 건물로 된 한옥 형태의 건축물들의 탄생이었다. 지금도 현충원 입구의 콘크리트 성형 건물은 한옥의 원형을 보여준다. 경복궁의 한 복판에 있는 민속박물관은 이런 국가적 테마에 철저하게 호응한 '전통양식'의 최고를 보여주었다.

흔히 농담처럼 성형외과 가서 눈썹은 누구처럼, 눈은 누구처럼, 코는 누구처럼 해서 조립하는 것처럼 경복궁 민속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요소들을 집합해서 만든 건축이다. 그런데 이를 국수주의로 볼 수 있을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민속박물관 건축사가 우리 건축의 지나친 자긍심으로 했다고보다는 현상설계 요건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 정치 권력자들은 왜 이런 건축을 요구했을까? 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나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확신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일본의 1930~40년대 건축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1930~40년대 일본은 서구와 경쟁하던 시점이었고, 개화기 이후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시기였다. 19세기 미국에 의해 강제 개방된 이후 이들은 탈아입국의 자세로 산업화에 매진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왕권 강화 시대는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을 바꾸자라는 구호로 대중을 설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가 열등감을 조장할 수 있었다. 더욱이 식민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열등감 있는 지배국가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지를 확보한 제국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극단적 자부심 강조는 국수주의적 현상을 이끌어 냈다. 더구나 3,40년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된 서구와 전쟁을 해야 했다. 당연히 국가적 우수함에 눈을 돌렸고, 3,40년대 일본 건축은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 냈다. 건축적으로는 과도기적 현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실험이었다. 서구적 건축 원형과 일본의 전통 건축을 섞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1960년대 국가 권력에 의해 주도된 건축은 바로 일본의 3,40년대 국가 건축과 맥이 유사하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상황과 맞물려 이들의 지배 논리중 하나는 산업화 시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를 닮자’와 ‘우리도 우수하다’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했다. 더구나 부족한 고도 산업 구조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진행된 성과를 보면 상당한 성공과 결과를 만들어 냈다. 건축 또한 국수주의와 사대주의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였다. 문제는 이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한 건축 논리

1980년대 우리 건축계에 한바탕 이슈가 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였다. 모더니즘이 학문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철학 논쟁에 휩싸인 것이다. 1967년도 느닷없이 나타난 김수근 건축의 부여 박물관 왜색 논쟁은 아노미 상태의 한국 건축계에 일어난 최초의 학문적 현상이었다. 어찌면 이후에도 없는 반가운 논쟁이 아니었던가 싶을 정도로 당시의 자료를 보면 재미있었다. 어떤 건축도 이보다 치열하게 우리사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후도 이런 논쟁은 없었다. 다만 이 논쟁의 근거를 보면 서구건축철학에 기반하면서 국수주의적 시각을 가진 일본 사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보인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이런 건강한 학문적 논쟁이 더 진행되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 스스로 정립하지 못한 모더니즘 상태였는데, 느닷없이 해외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해버렸다. 그리고 건축언론계를 장악했다.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없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 현상은 10년 뒤 1990년대에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미리 논쟁한 거나 다름 없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서구의 모더니즘에 대한 부작

용과 대안에 따른 여러 가지 철학적 논쟁이었는데, 1990년대도 여전히 포디즘의 대량 생산과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국가에서 미리 이야기 한 셈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체험하지 못한 ‘수입된 선진 철학 논쟁’은 건축계에서 소멸되어 버렸다. 이어서 수입된 건축 철학은 ‘해체주의’였고 이를 끝으로 철학적 논쟁이 건축계 주류언론에서 사라져 버렸다.

흥미로운 점은 20세기 초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스케치에서 동기부여를 받은 데스틸 운동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의 시각적 건축 표현이 국내 건축에 반영된 점이다. 이 또한 우리 스스로의 건축 철학 부재가 가져온 현상이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체로 후발 산업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19세기 개항이후 일본은 철저한 서구답기를 시도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 제국호텔 건축과정이다. 19세기 산업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호텔 건축이 시도되는데, 영입한 독일 건축사는 일본적 전통을 가미한 호텔 디자인을 선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 권력자들이 요구한 것은 일본적 전통이 완전히 배제된 ‘멋지고 우수한’ 서구 건축이었다. 독일 건축사의 작품은 탈락되고, 철저하게 유럽 건축을 숨털까지 재현한 일본 건축사와 타나베 유즈루(渡辺譲)의 설계가 채택되고 지어졌다. 서구식 옷을 입고, 서구 건축에서 서구식 음식과 음악을 들으며 서구와 동등한 성장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려 했다. 그리고 그들과 경쟁이 치열해 지자, 이번에는 자기 자신들의 우수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스러운 것’들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선택된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재탄생된 ‘일본스러운 서구 현대 건축’으로 완성되었다. 이번에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곳곳에 참미된 서양건축인 것이다.

1890년에 첫 번째 제국호텔은 1920년대 두 번째 제국호텔로 바뀌었는데, 30년 만에 바뀐 극적인 변화가 시사하는 것은 건축관을 통한 ‘국수주의와 사대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가깝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바뀌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바탕이 부족한 것을 증명한다.

1980년에서 90년대 걸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는 우리 건축계에서 체득하고 경험해서 나온 논쟁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갈증과 열망에 의한 지적 유희적 경향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건축에 대한 치열한 공부가 전개되었다. 이는 건축계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시선이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한국적’과 동시에 사용되면서 시각화를 시도했다.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족’은 한때 운동권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문화와 자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만든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문학이나 철학 등 타 장르에서 치열하게 확대되면서 논의되었던 주제였지만, 건축계에서는 오히려 90년대 이후 논의의 주제에서 점점 사라졌다.

부러운 일본 건축, 그리고 사라진 논쟁의 한국건축

이웃 일본의 존재는 현대화한 우리에게 까다로운 국가다. 특히 건축은 그렇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시대는 거의 100년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알게 모르게 일본풍은 건축계도 잠식하고 지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본의 과도기는 1950~60년대 양팡테리블 같은 젊은 건축계 모험자들에게 의해서 메타볼리즘이라는 아마추어 실험이 나타났다.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 스스로의 철학은 점점 새롭고 다양한 시선을 유지시키면서 일본만의 건축을 등장시켰다. 세월이 지나 현재의 일본 건축은 확실히 서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불안하면서도 가볍고, 엄격하지 않으면서 유니크한 형태를 등장시키면서 분화에 분화를 거듭한 건축 작품들을 보여준다. 이를 인정하고 구매하는 해외 열혈 소비자들이 탄생하기도 한다. 당장 우리나라 대기업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도 첸코군마에게 의뢰한 건축 작품이다. 우리에게 친밀한 척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또 팔만 대장경을 운운하지만 가시적 결과는 21세기 일본 건축이다.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건축 철학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새로운 트렌드에 몰입되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서구 철학이나 과학적 사고가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의 용어인 ‘마케팅’이 은근히 세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철학적 바탕이 될 만한 메타볼리즘 같은 주제 없이 달려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변화의 속도는 상당하다. 마치 1890년 서양식 건축이 30년 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으로 트랜스폼이 된 것처럼 바뀌고 있다. 뷔페식당의 다양한 음식처럼 한국의 건축 소비자들은 골라먹는 건축 부패를 만끽하고 있다.

이젠 사대주의나 국수주의를 논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건축 소비자들이 골라 먹는 건축 부패의 저변에는 ‘지금 세계에서 유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뿐이다. 처절한 생존에 살아남아야 할 건축사들은 이를 열심히 공급하고 있다. 너무 슬픈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은 건축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시각화 노력으로 하나씩 자라고 있는 것은 느껴진다. 그것이 조금 더 자라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월간 건축사의 작품 코너에 올라오는 작품들을 보면 이런 싹들이 보인다. 이번 경기도는 가장 왕성한 대표주자 작품들이 올라와 있어 우리 건축계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없이 스스로 자란(自生한) 국내 건축사의 작품으로 독창적 표현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싹들이 ‘국수주의나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우리 건축’을 향한 자람이다.